

전공이 다른 모든 분야, 다시 말해서 넓은 의미에서의 과학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환경에 적합한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과학사회학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다음 세 분야의 연구과제를 제안하면서 발표를 마칠까 한다.

1. 과학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문제
2. 과학기술의 조직에 관한 문제
3. 과학기술과 제도 및 국가에 관한 문제

南秉吉의 生涯와 天文學

來 奎 虞 大 世 延

I. 南乘吉과 그의 집안

本은 宜寧이요, 字는 子裳, 元裳이고, 後名은 相吉이며, 號는 惠泉, 六一齋, 晚香齋, 留齋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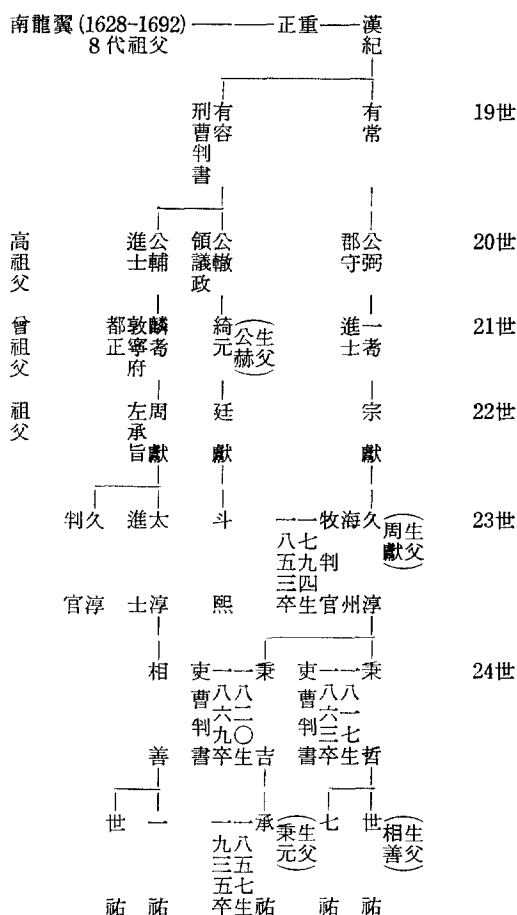
耳目口鼻가 뚜렷하고, 풍채와 태도가 단아하고 바르며, 뛰어난 머리로써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을 칭찬을 들어왔다. 秉吉은 兄 秉哲과 더불어 崇政大夫(從一品)까지 올라, 觀象監提調와 吏曹判書를 지낸 후에 세상을 떠났다. 이들 형제는 부모에 대한 孝誠이 지극하였고, 형제의 友愛가 남달리 깊었다고 전해진다.

이들의 族譜는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後孫이 귀하고, 또 후손이 없어 養子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8대 祖父 南龍翼(1628-1692, 大提學·吏曹判書를 지냄)을 비롯하여, 5대 祖父 有容(刑曹判書 지냄), 領議政을 지낸 公轍, 高祖父인 公輔(進士를 지냄, 公轍의 弟), 養祖父 宗獻은 3대째 獨子였다가 후손이 없어 左承旨를 지낸 周獻의 아들 久淳(1794-1853)을 養子로 맞게 된다. 이렇게 해서 久淳의 아들로 重哲(1817-63)과 重吉(1820-69)이 태어나게 된다.

어머니는 安東金氏, 永安府院君(忠武公) 金祖

〈表 1〉 南秉吉의 族譜



淳의 딸로, 자세가 바르고 婦德이 또한 높았으며, 神色이 깨끗하였다고 전해진다.

外祖父 金祖淳은 安東金氏 勢道政治의 기틀을 다져 놓은 사람으로서, 그들의 後孫은 純祖(金相淳의 딸과 婚姻), 憲宗(金祖根의 딸과 혼인), 哲宗(金汶根의 딸과 혼인)代에 이르기까지 60여년 동안을 勢道政治를 하며 크게 權力行事를 하였다.

또한 형인 重哲도 永興府院君 金祖根의 딸과 혼인하여 권세높은 安東金氏와 더욱 더 깊은 人戚關係를 맺게 되었다.

II. 南秉吉의 生涯

1820년(純祖 20년) 3월 6일에 태어나서 한시
도 흐트러짐이 없이 밥낫으로 정력을 쏟았으며,

전혀 게을리함이 없이 더욱 더 부지런히 연구하여 많은 책을 著述하였다. 실로 偉人으로 顯彰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1869년(高宗 10년) 6월 11일, 安峴(지금의 安國洞) 저택에서 享年 50세의 아까운 나이로 생을 마쳤다.

그의 무덤은 두번 移葬하여 도봉산 기슭(?)에서 서울特別市 恩平區 南加佐洞(現 明知大 자리)으로 옮기고, 지금은 京畿道 南揚州郡 別內面 靑鶴里(松山先塋)에 초라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는 청빈하고 강직하였으며, 항상 어렵고 약한 사람 편에서 일을 하였다. 아침을 싫어하고 不義를 바로잡아 가는 곳마다 존경과 추앙을 받았다. 부모에 대한 孝道는 물론이고, 형에 대한 우의도 두터워 형과 형수를 부모와 같이 존경하고 께듯이 모셨다고 한다.

다음과 같은 逸話는 그의 인간상을 잘 말하고 있다.

(1) 成川府使

1851년 겨울, 약관 32세의 나이로 平安南道 成川府使가 되었다. 마침 그해 극심한 가뭄으로 큰 흉년을 만나 백성들이 편히 쉬지 못하고 죽는 자가 많았으며, 도적들이 판을 치고 다니고 을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밤을 지내야 했다.

여기에서 南秉吉府使는 행정과 治安의 질서를 바로잡았고, 이곳 저곳에서 곡식을 상납하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고 곡식 창고를 굳게 지켜 오직 成川 고을 주민들에게만 구호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봄에서 여름까지 고을 주민들을 잘 보살피 구제하는 方略이 있었으니 그 고을 사람들이 높이 칭송하였다.

(2) 父親死亡(南久淳, 1794-1853)

1853년 형 秉哲은 平安道 觀察使로 있었고, 동생 秉吉은 兵曹參議로 在職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병환이 심해지자 두 형제는 모든 관직을 사임하고 아버지를 간호하며 학문연구에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해 10월 16일에 父親喪을 당하고, 3년 동안

墓所를 지키면서 학문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 기간에(1853-1856) 연구한 두 형제의 학문이 책으로 저술되어 계속해서 발간되어 무려 30여권에 이르게 된다.

그의 첫 작품이 天文學에 관계되는 中星新表(1853년 지음)이다.

이 두 형제가 그 누구보다도 빼어나게 효성심이 컸다는 것은 당시의 右議政 朴珪壽(1807-1876)의 諡文에도 잘 나타나 있다.

(3) 開城府 留守

아버지의 3년 脫喪을 하고 黃海道 開城府 留守가 되었다. 여기에서도 그의 탁월한 行政能力이 발휘되었다. 그는 清廉했으므로 강한 자에게는 엄하고 약한 자를 언제나 돌봐주며 많은 善政을 베풀었다. 南秉吉이 開城을 떠난 뒤에 개성의 주민들이 그의 畫像과 비석을 새겨놓고 제당을 만들어 오랫동안 칭송하며 제사를 지냈다고 하니, 그의 善政이 어땠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Ⅲ. 南秉吉의 天文學

(1) 觀象監提調

春秋館事, 義禁府事 직을 맡으면서 南秉吉은 觀象監提調 직을 겸직하게 되었다. 1859년 40세의 나이로 300여명의 관원을 거느린 관상감제조 직을 맡은 후, 잠시 司譯院提調로 봉직하다가 또 다시 1866년(47세)에 觀象監提調에 되돌아왔다.

父親喪(1853-1856) 때가 學問에서 꽃의 봉오리라고 한다면, 관상감제조 때는 꽃이 활짝 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853년(父親喪)에 「中星新表」로 시작해서 1869년에 哲宗의 命을 받아 지은 「春官通考」에 이르기 까지 30여권의 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그는 당시 누구보다도 算學에 능통하여 日食·月食 계산 등 天體運行에 관계된 時刻의 계산을 中國의 것과 西洋의 것을 비교하면서 거의 완벽하게 해 내었다. 당시 중국의 학문만을 주장하던 많은 학자들을 설득하여 새로운 서양학문의 세계로 전개해 나갔다.

그 중 최고의 업적은 雜科試驗에 쓰는 方術書 가운데 李純之의 「天文曆法」과 丹元子の 「步天歌」가 曆을 만들고 법을 살피는 方道の 이치에 가깝지 않고,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時憲紀要」와 「新法步天歌」(李俊養編, 文一齋校正本) 등을 편집하여, 임금에게 啓를 올려 印刷하고 雜科試驗에 사용한 것이다.

또한 「春秋傳」의 日食을 소급계산하여 그전 사람의 계산이 치밀치 못함을 밝혔으며, 算學에 관한 여러 책을 편찬하여 학문의 혼란을 깨우쳐 주니 관상감 관원들이 감복하였다.

全相運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時憲紀要是 조선의 天文學教育을 위한 教科

書였고, 1908년에 鄭永澤이 譯述한 現代天文學教科書(국한문 혼용)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유일한 것이었다.』

(2) 南秉吉의 著書

南秉吉의 偉대한 業績은 30여권이라는 著書만 가지고도 충분히 남득할 만한 일이다. 南秉吉의 著書로서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소개하면 <表 2>와 같다.

著者の 이름이 秉吉로 되어 있는 것이 14권(種)이고, 元裳으로 되어 있는 것이 9권(種), 文一齋로 되어 있는 것이 1권(種), 기타가 2권(種)이다.

<表 2> 南秉吉의 著書

冊 名	著 者 名	數 量	活 字	備 考
1 星 鏡	秉吉	2卷 2册	本活字	
2 時憲紀要	秉吉	2卷 2册	"	
3 新法步天歌	文一齋 校正本	1卷 1册	"	36張
4 推步捷例	秉吉	2卷 2册	"	
5 選擇紀要	秉吉	2卷 2册	全史字	
6 算學正義	秉吉	3卷 3册	"	李尙赫校正本
7 九章術解	秉吉	9卷 2册	"	
8 劉氏句股術要圖解	秉吉	1册	"	92張
9 晚香齋誌錄(晚香齋詩鈔)	相吉	1册	"	
10 春秋日食攷(考)(春秋月食考)	元裳	1册	寫 本	
11 萬松新書				未發見
12 中星新表	秉吉	2册	全史字	
13 重修中星表	秉吉	1册	本活字	
14 測量圖解	元裳	1册	"	50張
15 緝古演段	元裳	1册	全史字	57張
16 { 借根方蒙求	志叟述	刊本 1册		105張
"	李尙赫著	上下 2册		
17 恒星出入表	元裳	1册	木活字	
(恒星出中入表)	元裳	42表		38張
18 量度儀圖說	元裳	1卷 1册	全史字	李尙赫訂
19 無異解	元裳相吉	1册	木活字(全史字)	29張
20 數學節要	元裳	1册	寫 本	62張
21 涓吉龜鑑	元裳	2卷 2册	全史字(木板本)	
22 院堂尺牘	秉吉	4册(1册)	全史字	71張
23 文一齋叢書	秉吉等著	11册	銅活字	
24 太陽更漏表				未發見
25 大典會通	秉吉	6卷 5册	木活字	趙斗淳 外
26 文典條例	"	10卷10册	木活字?	"
27 春官通考	"	禮曹의 사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책		

그밖에 다수가 있으나 찾지 못함.